









政府側은 차가... 上院對答도 없었어오

그때도 國會는 그대로 마라보고 있을 때

鐵金品禁藥禁止法 人權保障에對해서 國會에서

무이러지고 소리가 안나오도록 버렸지만

기예對해서 아무런效果도 나타내지 못하고

對해서 國會는 어떠한 強力한手段도 未取하

고있었습니다 또 豫算運營違反에對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豫算案을 내놓아도 國

會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容恕해주는 이렇게

溫順하고 處女와같은 國會입니다 이國會를

後 또다시 弱化할意圖가 어디에있을나라

(「술소」하는이 있음)

國民의意思를 물어보면 現在까지 國會의 權力

이 強化될것을 預言한 弱化的인것을 마라는사

말은 하나도없습니다

(「술소」하는이 있음)

세째로 그러면 政府에서 提示한理由가 그렇고

本來 兩院制하는對해서 缺陷이 그렇고 그러면

세째로가서 또하나는 親切하게 檢討해볼問題가

있읍니다 이것은 單院制의 缺陷은 兩院制에

依하지않고 除去할수있는가 없는가 여기에까지

檢討해볼 親切한 가져야할것입니다 첫째로 國

會가 專制한다 이런말을한다고하면 大韓民國의

國會는 專制한일이없읍니다 專制해서 弊端이있

다고하면 그것은 國會의 專制가 아무리 極度로

나간다고하더라도 그國會의 專制하는限度가 그

렇게 早게 專制가아닙니다 國會가 專制하다오해

서 國會를 批해서 「구태의」를 할수가있읍니

가 누구를 잡아서 各種權利가있읍니까 다만

議政壇上에서 是非非非를 떠돌면이거지 이國會의

專制가 얼마나 弊端을 가져오는가 그弊端의

程度라는것은 너무나 微弱한것입니다 그렇지만

假令 그弊端이 있다오하더라도 大統領에게 拒

否權을 줌으로써 因해서 또한 그것으로써 오히려

議院內閣制를 採擇해서 政府에 國會의 解散權

을 줌으로써 因해서 因해서 防止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區區하게 歷史的 一種의

退化物에不過한 兩院制을 붙이지않으면 單院制

의 弊端을 防止할수없다는 理論은 成立되지않

는다는것을 指摘합니다 또한 亦是 單院制에

따라다니는 政府의 獨突 政府의 獨突은 아

까도 當然한바와같이 政黨政治의 健全化와 民

主政治의 發揚 議會의 中心政治를 期한다오하면

單院制에있어서 政府와 國會의 衝突이 없어진

다는것입니다 또한 單院制에서 犯하기쉬운 急

進的인過誤 이런말을 흔히 합니다 單院制에있

어서는 그러한 무슨일을 急進的으로 決定하도

로 因해서 過誤를犯할수있다 이것은 或犯할수있

는것이예요 이것은 結局 政治責任感의 確立이

라고 하는것을가지고 넘겨지 負責할수있는것입니

다 세째로 單院制의 非專門的인缺陷 이런點을

指摘할수입니다 單院에모인 國會議員은 專門的인

智識을갖지못한사람이 當選되었기때문에 專門的

인問題를 總論한것에는 相當한 缺陷을가져온다

고하는 이런말입니다 이것은 專門委員制度의

活用에依해서 넘겨지 負責할수있는것입니다 또하

나의 院을 選는다오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專

門家가 모여드는것이아닙니다 더구나 이번이나

은 改憲에 上程構設이라고 하는것은 어찌해도

어느同志가 指摘한바와같이 下院의 弊端을 指摘한

國會가 아니라 構成될것이 豫想될뿐이지 거기

에 어떤 專門智識을가질다른지 豫想될것이 量

富한 사람이 모여들거면 豫想이아닙니다 이런

點을가지고 單院制의缺陷을 兩院制을 하지않고

도 能하 是正할수있다고 하는말을 드됩니다

그다음에는 本改憲案에있어서의 缺陷을 指摘하

겠읍니다 지금까지 말한것은 一般論的으로

말씀드린것이요 이번엔 改憲案에나타난 이缺陷

은 첫째로 어찌해 質問하든 나쁜바와같이

院의 意見이 서로 相異한점에 關한는 條文의

缺如 이것을 指摘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上

院과 下院間의 意見의 一致가되지않을적에 어

떻게 調節할것인가 이問題 이것은 豫算案에도

있고 或은 法律案에도있고 其他에 條約批准

어러가지 方面에있어서 서로 意見이 맞지않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하는 規定이 하나도없어요

그래서 어찌해 質問을하나가 政府側의 答辯이

議事規定을가지고한다 했읍니다 議事規則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이에요 下院은 下院대로 議事規

則을定합니다 上院은 上院대로 議事規則을定합

니다 兩院 議事規則이 서로 衝突할때에 누가와

서 調節하고 어떻게 調節합니까 나는 어찌해

그答辯으로써 或은 이런말이 나올라했어요 그

것은 法律을가지고 그런規定을 만들면 좋지않

느냐 이런말이나 나올라했었어요 그러나 이것

은 안될말이에요 下院은 下院에有利하게 調節

規定을만들고 上院은 上院에有利하게 調節規

定을 만들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싸우고있을때

에 그法律自體를 못만들것이고 法律自體를만들

때에 무엇을 어떻게하오 國政萬事를 그만두



法會 가오커서 三權分立의 嚴格하게 憲法이  
 라고 이것에 充實하면 行政府의 首班을 立  
 法府인 國會에서 選出한다는 것은 三權分立의 原則  
 에 違反한다. 이리한 問題가 하나같이 있을지나  
 그렇지만 亦是 모른點을 弄았이 이렇기 嚴格  
 하게 해야 할 것임이다. 이의 意味에서 本지에 上院  
 의 議長을 副統領으로 한다. 이렇기 三十六條第  
 二項에 規定되었나니 美國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기 當然한 것이다. 그렇지만 美國이라는 그  
 나라는 이것을 本질에서 美國은 지금처럼 理  
 論化되지 않았을 때에 本國憲法이야 勿論 남의  
 나라의 制度를 採擇할 때에는 반드시 그 理論的  
 根據 歷史的 根據 여러가지를 考察한 후에 이것  
 이 理論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採  
 擇해야 할 것이야요. 그런데 美國이 그렇하고 해서  
 그대로 採擇한다는 것은 安穩할지나 다 그렇지  
 하면 이가 安穩드리와 같이 大統領의 直接選  
 舉는 三權分立 嚴格하의 原則에서 이면과 그  
 樣은 亦是 行政府의 一構成員인 副統領을  
 立法府인 上院 議員으로 만드는 것은 三權分立의  
 原則에 違反한 것임이다. 이의 點을 생각  
 한다면 三權이 改革案을 本지에 理論的인 考  
 慮를 犯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다. 남의 나라의 制度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  
 니라 반드시 制度를 檢討하지 않고 따라가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인제 본지 被敎民族  
 이라는 辨別에 陷을 수 있을 것임이다. 이의 點이  
 하나 있고 그 다음 若手 細細한 條文上의 不備  
 가 相當히 있을 것임이다. 예를 들면 眞實權을  
 選附할 때 어느 院에나 먼저 選附하는가 여기

에 對해서 美國憲法에 依하면 이것은 그것을 選  
 附할 때로 보인다는 것이 이면과 定해있어야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定해있지 않다는 것임  
 다. 또 上院의 副議長이 議決權의 問題에  
 關한 規定이 없으므로 副議長이 上院의 議長이 될  
 지에 議決權을 가지지 않는다는 理論的 根據는  
 首肯할 수 없으므로 그 이하하면 副議長은 國會  
 議員이 아니기 때문에 議決權을 안한다. 이것  
 은 알 수 있어야요. 그렇지만 萬一 副議長인 上院  
 議長이 어떠한 故障이 있어서 上院 議員인 副  
 議長이 國會를 掌理하는 議決權을 가지지는 것임가  
 決定權을 가지지는 것임가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規定이 있어야 할 것임이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아무런 考慮도 없는 것은 發見된 것임이다. 이  
 外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條文上에 矛盾이 많이  
 있음이라만 그것은 一一히 指摘을 避하지 못할  
 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으로 보아는 元來 兩院  
 制 그 自體를 採擇할 必要로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더구나 이면과 本지는 이 改革案을 따라나  
 上院制하는 것은 兩院制中에서도 至極히 拙劣한  
 兩院制에 上院과 下院을 本질에서 上院하고  
 下院과 權限을 同一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豫想  
 할 수 있고 或은 下院의 權限을 더 優位로 하는 것  
 으로 豫想할 수 있고 反對로 上院의 權限을 더 優  
 位로 하는 것으로 豫想할 수 있는 것임이다. 그런데  
 저 지금의 豫想보다 아지는 下院의 權限을 優  
 位로 하거나 全權 上院을 없애거나 이러한 趨  
 勢도 나중에도 不拘하고 下院과 上院과 同一  
 하게 하리라 彈劾權 같은 것은 오히려 上院의  
 權限이 下院보다도 優位로 되어 있는 이면한 至

拙劣한 上院制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指  
 摘하는 것임이다. 그 다음에 第一 卷으로 時期  
 와 財政上의 檢討을 簡單히 略술하리다. 여  
 러를 알아지는 時局은 時期는 우리가 昨야로  
 보거나 사느냐하는 戰爭을 하는 가운데 있음  
 니다. 또 財政上으로 보면 德義軍營 戰費軍  
 營의 遺家族에 對한 援助: 第一 棟軍營에 對한 補  
 給: 여기에 對해서 最低限度의 財政도 幾우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아님이라 재가 요런데 地  
 方에서 共匪가 出沒하기고 있는 白雲山 밑에  
 가보았을지나 거기까지 있는 軍隊들이 營地에서  
 피혁을 불고다니면서 그 말을 담이먹을 밥그릇  
 하나 없으므로 飢餓에도 그러다가 굶어죽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셨으므로  
 그地方民으로서 거기 軍에 어떠한 일을 協助하  
 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亦是 그地方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사람들이 4은 營營이  
 들 싸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말하고 따라다니는  
 이러한 狀態에 있는 軍隊 第一 棟의 補給에 對하  
 루기 위해서 지금에 있어서 上院을 하나만 둘리면  
 이면 우리 八五年度의 豫算案에 보아는 이國會  
 의 豫算이 十七億七千餘萬圓임이다. 저어오 上  
 院을 하나 보든다면 이만 豫算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의에요. 이豫算을 德義軍營의 年賦金  
 에다 붙이면 德義軍營年賦金은 八五年度 豫  
 算案에 보면 二十億으로 되어있을지나 여기까지  
 十億만 더 보든다 그 하도라도 저어오 五割을  
 더 보든다는 것이 되지 않겠음나라. 이면 點을  
 생각하면 必要한 國家機關도 備수 있는대로  
 줄아가면서 저내갈 이 段階에 있어서 또 이미





統領의 二名이라든 것은 적어도 國務委員의 重  
 嚴의 集結體라고 斷定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苛烈한 激烈한 戰爭 아비에서 더욱 모든  
 國民이 이 戰爭完遂함으로써 모든 生命과  
 財產을 다 바치는 이때에 이것이 이 憲法을  
 내놓음으로써 政治的인 여러가지 副作用이 일  
 어나서 戰爭에 미치는 모든 副作用이 일  
 政府 自身이 責任을 지지 아니 하려고 이렇기  
 現 國務總理은 戰爭을 激發하고 이렇한  
 民主主義的인 建設的 意見을 갖다가 拒否한다  
 는 것은 言語道斷이라든 말 할 수 없읍니다  
 라는 이것은 民主主義 發展을 指向한다는 美  
 名下에서 現實의 國內의 利益을 無視하는 獨  
 斷的인 解釋이라든 指摘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改憲案이 國會에 遞付되었을 때에 國務委員  
 諸公이 여러가지 副를 하신 것을 보고 勿論  
 그런 節次를 밟았기 때문에 國會에 遞付되었으  
 미라고 생각하나다라는 이 副를 한 것을 보  
 고 나는 至極히 寒心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理由  
 는 國會에 遞付되기 전에 벌써 國民은 政府가  
 요런에 改憲案을 내리라는 그러한 消息을 들  
 고 그 그것에 政府의 施策에 대해서 모든 國  
 民의 輿論이 是非가 沸騰되었든 마이을사다 그  
 러면 國民 全體가 大統領께서는 어떠한 提議  
 로서 國民 全體가 이것을 滿意하신다 그 提議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라는 우리가 國會의 選  
 良이 沸騰하는 國民이 이 改憲案에 대해서  
 大膽히 冷酷한 態度를 띠고 다룬다. 여기에 대한 不  
 愉快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여기서  
 제가 指摘할 수 있나 그 國民 全體가 그렇게

好은 좋은 그러한 改憲案에 대해서 적어도 이  
 나라이 國政을 맡아가지고 있는 國務委員 諸公  
 들이 大統領의 聰明을 잘 이끌어들이지 못하고  
 捕頭로 되게 못하고 거기다가 署名을 해 놓았  
 다는 이 점을 볼 때에 나는 이 大統領에게 이  
 改憲案을 내리라는 그 責任을 追窮하기 전에  
 國務委員 諸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責任을 지  
 라고 여기서 強調하는 마이을사다 지금 이  
 直接選舉制가 우리 나라 實情에 妥當하다 인  
 하나 이점에 있어서 簡單히 말할 수 없고  
 실습이다. 先進國家에 있어서도 民主主義가 權  
 度로 發達된 美國에 있어서도 大統領의 直接  
 選舉가 아니옵시다 이것은 大統領을 選舉하는  
 間接選舉民衆을 指定하기로 그 사람이 大  
 統領을 選舉하는 形式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면 民主主義 初期에 있어서 發展過程  
 에 있어서의 大韓民國에 있어서 國家가 十萬  
 의 選良인 國會議員이 大統領選舉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時間的인 過程에 있어서 가장  
 妥當한 方法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  
 금 直接選舉를 採擇한 比律實이나 「네시크」  
 의 實例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도 더 民主主義  
 的인 歷史를 많이 밟아온 그 나라에 있어서  
 大統領選舉制는 數百名 數千名의 生命의  
 價値를 가지고 그러한 國政이 紊亂되진 그러한  
 實情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나라 國政이  
 萬一에 大統領選舉를 정할 自由가 없으면  
 에서 할 수 있나 그 할 것 같으면 別問題이지만  
 그러한 事態를 想像할 때에 우리나라의 國政  
 이 아직 거기에 到達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遺

傳이라든 생각하지 마는 指摘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先進國家에서 모든 民主  
 主義的인 發達을 그 成果를 얻어 오고 있어서 그  
 것을 即時 輸入해서 大韓民國에서 採擇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外國사람이 「파라」를  
 먹는다고 해서 「파라」가 糞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만은 事實이옵시다. 원장이나 간장이  
 우리에게는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는 이 直接選舉制를 採擇한다는 것은 民主主義  
 를 指向하는 最高의 目標으로써는 우리가 조금  
 모이 것을 拒否할 理由가 없읍니다라는 아직  
 大韓民國의 建國 四年에 이것을 가지고는 아  
 직 大統領直接選舉制를 採擇한다는 것은 民主  
 主義의 義名 아래에서 行하진 獨裁勢力을 持  
 成시킬 念慮가 있다는 것을 憂慮 아니 할 수가 없  
 는 마이을사다  
 (「출사」하는이 있음)  
 도 하나 우리가 民主主義政治를 指向함에 있  
 어서 國民의 政黨的인 政黨政治가 그 線에  
 併行해가지고 相當히 成熟한 政治에 이르러야  
 니 할 것 같으면 民主主義政治라는 것은 그 成果를  
 얻어가는 어떤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建國以後에 우리나라의 政黨 發達을 지금 現  
 大統領께서 大膽히 提議를 하셔서 政黨發展에  
 대해서 여러가지 角度로써 策劃해 주신 것은 이  
 國政을 大韓民國의 民族의 性格은 어떻게 알  
 으셨는지 何如問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飛躍的으로 高踏的  
 으로 이러한 새로운 構想을 採擇해서 여기  
 서 우리에게 이것을 안하면 國家의 將來에

對해서 커다란 影響을 남긴다는 말을 하신 것만은 到底의 理解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은 어 거서 그가 斷言을 하시나 다. 그리고 나서 反對의 同盟을 조직시키나 다. 法理論이나 制度에 있어서의 缺陷이란 존재 矛盾은 아라 嚴正 變遷을 위해서 充分의 說明을 하시나 다. 이것은 必要가 없지는 結論으로써 저의 民主國民黨에서 現 行 憲法의 缺陷을 實質적으로 指摘해서 이것 을 고치는 改進黨이 아니냐는 以上에 는 이 政府 改進黨에 對해서 는 反對黨을 表示하고 물어가는 바입니다.

○兩議長(曹奉岩) 다음은 民友會 代表로써 徐二煥議長이 演說하고 徐二煥議長을 紹介한다.

○徐二煥議長이 이 改進黨에 對해서 는 反對가 많은 까닭에 贊成演說도 했으면 좋겠습 니다(笑聲) : 全部가 反對가 되는 것을 니 무 不安하라는 말을 前提로 하고서 本論에 들어가겠습니다. 本議長은 五·三十選舉에 立候補할 때에 大統領直接選舉制과 上下兩院制과 內閣責任制을 標榜하고 나섰으니만큼 原則에 있 어서는 改進黨을 贊成하는 사상의 한사합입니 다. 무엇보다도 할지라도 真正한 民主主義의 精神을 行하려고 할것같은데 大統領의 直接選 舉制도 하는것은 法理論에 있어가지고 尙 妥當하다고 나는 믿는바입니다. 이 直接選舉 制가 提案이 된 後에 卷開의 輿論을 볼것같 으면 現在 國會議員들이 가지고있는 大統領의 間接選舉制과 하는것을 바꾸지 憲法까지 고치는 既得權利의 者는 難矣라고고서 固執을

하자는 아니합니까 하는 說이 있습니다. 本議長은 여기에 對해서 는 絕對로 그렇지 아니하다. 一部 에 그런 觀念을 가진 人士들이 있을지 모르 지만는 무엇이든 할지라도 選民들이 아니라 自己 個人의 私念에 立脚하지 않고 그의 妄 發할것은 絕對로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屢 次 強調 力說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는 반드시 直接選舉 制을 實施되는 時日이 早速하게 到達하기는 尙早하고 準備하지 아니할 道理가 없는지 의 疑이 하지는 內閣制의 廢止를 云云하는 二說도 많이 있으나 本議長은 그것을 意味하 는것이 아닙니다. 贊成에 있어서 金憲俊議員이 詳細하게 演說한바가 있습니다. 地方自治制度가 現在 우리 國內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制度가 完全히 實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假使 今 年 三月까지 實施가 된다고 할지라도 現在에 地方自治法을 立法으로 實施하고 볼것같은 希望面長이 間接選舉制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特別市長이라든지 道知事는 任命制가 되어 있습니다. 國家가 領土的으로 組織되는 그組織 體에 있어서 最尖端인 市邑區長이 아직도 間 接選舉制가 되지 아니한 오늘날 大統領을 直接選 舉制로 可하냐 否하냐 尙 疑念 餘地가 없지 않 으면 可하리나 다. 特別市長이라든지 道知事를 任命制로 하고서 大統領을 直接選舉制로 한다는 意味는 果然 그 무엇이든 真正한 民主主義인 가 이것도 같은 疑問을 풀지 아니할 道理가 없 는바입니다. 原次있기스미 邑區長을 直接選舉制

로고치고 特別市長과 道知事를 亦是 特別選舉 制로 하고 直接選舉制로 하고서 그런 然後에 비 드스 大統領을 直接選舉制로 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國會가 地方自治法 을 改正하는 同時에 이 憲法의 改正案으로 上程시 켜야 할것같은 可能한 일이 있나 다. 생각하는바입 니다. 遺憾스럽게도 이것이 先後가 顛倒되 어있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救濟方 法이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大統領의 直 接選舉制라고 하는것은 時期尙早하는 結論을 引지 아니할 道理가 없는것입니다. 다음 이것을 前提로 하고 贊成한바와 마찬가지로 真正한 民主 主義의 政治라고 할것같은데 內閣責任制을 兼 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上下兩院制의 短點 에 對해서 는 어떠한지 먼저 演說한바에 照復 을 進하기 위해서 本議長은 거듭 演說하시겠습니다. 內閣責任制을 實施하게 된다고 할것같은데 나다. 內閣責任制을 實施하게 된다고 할것같은데 大統領直接選舉制과 法理上으로 矛盾이 있지 않 는다는 說도 있습니다. 大統領을 直接으로 選舉 하려고 하거나 內閣責任制을 行한다는것은 矛盾이 있다. 이러한 演說인데 本議長은 絕對 矛盾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內閣責任制이 아닌 限에는 國務總理를 除外한關係는 인정되지 任命制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真正한 民主主義의 政治를 行 하는 나라이기 위해서 閣僚를 國會가 認准하지 않는 例는 드물며 하고 보는바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에 무엇이든 取할바 重要한 政策이라고 하는것 은 我權獨立以來 體面에 비추어봐서 是正할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것입니다. 具體的으로 一一이 例를 時間까지 는 없는바와

推集의으로 要約해서 要約해서 要約해서... 是正하기爲해서 改憲의 絕對로 必要하다... 大統領直接選舉制 上下兩院制... 內閣責任制를 廢하지 아니한... 反對하지 아니한... 本議員은 本邦의 政黨를 代表한다... 三·四個月前부터 改憲論이 盛傳됨에 政府要人에게 對해가져고 要請한바가 있었음이다... 統領閣下를 對할機會가 많을것이니까... 民意를 反映시켜달라... 閣內閣責任制를 絕對로 期待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機會를 얻은 道理가 있다고 하면 直隸 進言하고저 하는바이다... 本議員이 屆屆事件을 報告하는段階에 있어서 民友會를 代表한 한사람으로서 그時에 參加하게 되었음이다... 口頭로써 補充報告를 本議員이 하게 되었음이다... 青年系列에서 少壯派系列에서 閣僚로 二·三人이 붙어잡히는 말이 있는데 事實이 아니라 틀림없다... 萬一 事實이라고 할것같은 國會의 支持를 絕對로 할기 어렵더라도 少壯派와 少壯派라고 할지라도 五·六 十·七十의 年長者보다도 國體하고 熱誠하고 忠實한 政治家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은 大體 例가 變遷할것이 아니므로 少壯派의 入閣을 시키는 것은 殊로 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가 大統領에게 答하지는 않을은 그런것은 絕對로 念慮할것이 없다... 政府의 對해가져고 人選에... 國務會議員은 그런 行 政을 하지지 말라... 閣內閣責任制를 廢하지 아니한... 三·四日以内로 公布하고 불렀 같은 要項은 安心할만한 人事가 行해지리라 고 하는 이번機會에 自信하고 있으니... 以上 念慮하지 마시고 國會會議 여러분들은 重大한 國會의 使命을 遂行해가져고... 行할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行해주시요 하는 그 行할 意味의 言함이 있었음이다... 反問한후 答하지는 말함이 지 금은 政黨의 訓練을 必要로 느끼고 있으니 大統 領의 直接選舉制와 上下兩院制를 만들어야 하겠 소 元來 制憲當時에는 時間의 餘裕가 없는가한 데 國際關係가 極히 微妙하고도 甚히 危急한 情勢에 놓여있는가한데 憲法을 制定하기爲해가 지고 時日을 오며 곤하고 할것같은 國際的 으로 漸漸 危急해진다... 勿論 當지하는 短 日內에 獨立國家로서의 體系를 갖추기爲한 모 든 法律을 制定하는에 너무 長時日을 虛費할 憂慮가 있으니... 力說되었던지하는 이제는 大體 國家의 基礎이 어느程度로 安定되어어있으니까 戰爭關係는 있 마고지지만 이제는 上下兩院制를 廢할時期하 고 보니까 上下兩院制를 만들어가져고 大統領 自自身이 立候補하기爲해서 秋毫도 그것을

念頭에 두오서 하는 말이 아니니 絕對 誤解하지 말고... 次期의 大統領은 直接選舉制로 해야한다는것을 나는 期待하고 있는바... 閣內閣責任制를 廢하지 아니한... 三·四日以内로 公布하고 불렀 같은 要項은 安心할만한 人事가 行해지리라 고 하는 이번機會에 自信하고 있으니... 以上 念慮하지 마시고 國會會議 여러분들은 重大한 國會의 使命을 遂行해가져고... 行할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行해주시요 하는 그 行할 意味의 言함이 있었음이다... 反問한후 答하지는 말함이 지 금은 政黨의 訓練을 必要로 느끼고 있으니 大統 領의 直接選舉制와 上下兩院制를 만들어야 하겠 소 元來 制憲當時에는 時間의 餘裕가 없는가한 데 國際關係가 極히 微妙하고도 甚히 危急한 情勢에 놓여있는가한데 憲法을 制定하기爲해가 지고 時日을 오며 곤하고 할것같은 國際的 으로 漸漸 危急해진다... 勿論 當지하는 短 日內에 獨立國家로서의 體系를 갖추기爲한 모 든 法律을 制定하는에 너무 長時日을 虛費할 憂慮가 있으니... 力說되었던지하는 이제는 大體 國家의 基礎이 어느程度로 安定되어어있으니까 戰爭關係는 있 마고지지만 이제는 上下兩院制를 廢할時期하 고 보니까 上下兩院制를 만들어가져고 大統領 自自身이 立候補하기爲해서 秋毫도 그것을

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의 意思를 表示해서  
 歡迎하기로 하여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자리  
 에 出席하였으므로 그런가하면 이제 우리는 本  
 會議을 위고 그리고 그 다음 會議을 歡迎하는 同時  
 에 우리가 發言을 할 必要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  
 게해서 시장 議長과도 發言이 되었는대 이의 本  
 會議까지요

(「일어나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暫時 休息하겠습니다  
 (下午十二時三十五分會議中止)

— (比律賓使節團歡迎의件) —

○議長(申眞熙) 우리와 友邦과 比律賓共和國  
 의 國會議員 여러분들이 「유·엔」軍의 一員  
 으로 韓國에서 英勇하게 싸우고있는 比律賓  
 軍隊을 訪問하고자 해서 韓國과 比律賓의  
 親善關係를 增進을爲하야 이분들이 오게된것입  
 니다 日氣關係도 數三日동안을 우리들이 기다  
 리고있은 나머지 에게 下午에 平安히 到京  
 해서 오늘 이時間에 우리國회의 손님으로 맞  
 이하게된것입니다 이 一行은 國會議員이 일곱  
 분이요 또 比律賓大統領의 代表格 한분과 또  
 比律賓 國防部의 代表格의한분 그래서 아홉분  
 과 그리고 有力한 新聞記者同志들이 또한 여  
 분은 그말과 一行으로써어있을니다 그러면 시  
 장은 子先 議長 議長 議長의 우리 議員同  
 志여러분에게 比律賓 國會議員 여러분들을 한  
 분씩 한분씩 紹介해드리서 한분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拍手로 歡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러면 지금은 第一번저 「틀·유·엔」 國會

議員을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으로는 「로베르토·데·아마·리올」 先生  
 을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으로는 「마르스탈·틀」氏를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은 「에스미탈·트·데·키」 先生을 紹介하  
 요

(一同拍手)  
 다음으로는 「안토니오·페리야」 先生을 紹介  
 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은 「페르데리코·핀치」 先生을 紹介  
 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으로는 「에르네스토·델키」 先生을 紹介하  
 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우리 約束으로써는 이 一行中的 代表  
 格인 한분이 發言을 하게되는데 잠깐 있었을  
 니다 容許하십시오 比律賓大統領代表格으로 오  
 신 「후안·데·스」將軍을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으로 國防部代表格인 「몬테니오」大領을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一行의 指導者格인 한분이 우리에게  
 發言해주기요 約束이 되었는대 人事의 前例에  
 드 子先 歡迎發言을 簡單히 本議長으로 말함

모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鄭重히하기爲해서 우리  
 는 本議員의 決議로 作定된 「트·데·키」를  
 그대로 期滿하고 다음은 金東成議員이 英語로  
 演說의 發言해주었습니다

「民主主義守護爲하야 「유·엔」軍의 一員인  
 友邦比律賓軍이 韓國共戰線에서 英雄的인 戰  
 闘의 戰果를 거두고있는 이時期에 比律賓國會  
 使節團一行이 來韓한을 우리三千萬 韓國民은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太平洋條約을 比席할수있  
 는 太平洋防共同盟이 成熟實踐段階에 臨한 此  
 際에 友邦比律賓愛國國民과같이 太平洋防衛責任  
 에 連帶的責任을 滿感하는 우리國民은 眞實로  
 比律賓 大統領閣下를 爲始하여 全國民의  
 健康과 榮榮을 꾀는 同時에 親善使節團諸位의  
 健闘와 神의 加護를 빌어 마시겠습니다 지금  
 은 金東成議員이 英語로 演說하기로합니다

○金東成議員(英文 트·데·키 期滿)

○議長(申眞熙)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여  
 기에 마지하는 比律賓代表格으로 比律賓國회의  
 多數黨의 黨內 領導者이시라는분입니다 유·데  
 니오 先生을 紹介합니다

(一同拍手)

○유·데니오 (比律賓國會議員代表)議長閣下  
 尊敬하는 國會議員 여러분들 子先 우리 一行을代  
 表해서 貴國會 앞에 저의말이 나옵니다 貴國  
 會에서 몇마디 人事發言을 드릴 이외같은 貴  
 重한 機會를 주시길은 深甚히 感謝하는바입니  
 다 이와같은 無上의 榮光과 絶好的 機會를가  
 진 이자리에서 本人은 여러분앞에 無限한 기  
 복을가지고 귀하노대統領閣下와 저의말의 政府



情을 나타내다 比擬實 戰國軍이 貴國에 와서 오날  
남까지 果敢히 國力을 가지고 共通된 決意를  
가지고 싸울수 있는 原動力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사우는 그大體名分이 또한 自己를  
이 守護하고자 하는 大體名分과 같다는點을 發  
見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오늘날까지 어  
떠한 것이든 實功功績은 매우 微細한 것입니다. 좀더  
많은 軍隊와 糧食 많은 砲臺를 어떠한 것이든 보  
내도 못하여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國  
민에게서 選舉를 받아서 被選된 眞正한 國民의  
指導者인 어떠한 國會議員을 지시하는 政府의  
實情을 잘 理解하고 이 못나라에서 온 政府의  
이 어떠한 것이든 軍隊를 보낸 것이 相當한 犧牲인  
것을 알지 못하며 또 政府의 마다하는 政府의 보지  
의 問題가 있다는 것을 잘 理解하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이와같이 軍隊를 보  
내서 政府의 結束을 一層더 굳게 하는 同時에  
또한 어떠한 것이든 사우는 이와같은 自由와 或은  
民主主義를 위해서 政府의 한 結束된 같은  
主權을 위해서 나가는 한 國民이 되고 한 「전대」  
를 가지기 위해서 사우는 이 政府의 衷心만  
은 어떠한 것이든 잘 理解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하나의 象徵을 表  
現하고 할 때에 한 개의 女子로써 象徵을 代表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女子로써 우리  
나라의 象徵을 代表하는 것은 女子에게는 사랑  
이 豊富하게 때문에 온 사랑의 象徵이다. 즉  
하나님의 深理에 대한 사랑 人道主義에 대한 사  
랑 이 사랑이 저의 國民精神의 象徵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의 象徵을 定한 것입니다. 우리의

實情은 바로 平近日前에 우리나라의 婦人들이  
우리나라의 軍士를 통해서 貴國 大體實人閣  
에게 傳達해서 이를 貴國婦人에게 드린 이야  
기 以上의 事實은 表現의 말과 事實은 行動을  
뜻을 수가 없는 말로 알아서 이제 어떠한 것이든  
그 便紙를 想起하게 하고 政府의 國家의 象徵을  
어떠한 것이든 想起하게 하는 마입니다. 過去에는  
貴國民과 저의 나라 國民이 서로 아는 바가 적  
었습니다. 今後로는 우리兩國이 더욱 가까워지  
고 親密한 關係를 맺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貴  
國의 偉大한 苦難의 時期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또한 政府의 深甚한 同情을 마치는  
同時에 政府의 一行이 오늘 이 會에서 貴國  
會장에 나타난 榮光을 가지는 것이 政府의  
나라와 貴國과의 間에 앞으로 繼續된 增進  
友好關係의 交流의 始作이 될 것을 希望하는  
마입니다. 우리는 이번 戰國에 있어서 貴國의  
結局적으로 勝利할 것을 確信하고 祈禱하는 마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깊은 友情과 親善  
을 表現하기 위해서 問安하는 最善의 問安을  
表現하는 우리나라 固有의 말이 있습니다. 그  
것은 「마구오」라는 말입니다. 이제 政府의  
이 政府의 同情한 感謝와 政府의 意見을 다  
表現하면 時間이 不足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以後로부터 어떠한 實情을 表現하고 意見을  
交換할 機會가 政府의 말에 많이 붙어 있을 것  
을 나타내서 政府의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났 것은  
앞으로의 友好關係와 親善關係를 增進하는 同  
時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든 怨讐의 優略에 대해  
서 果敢히 競爭하는 이 戰國에 鮮명한 結果

를 이루어져 最終의 偉大한 勝利를 거두실 것  
을 政府의 이 자리에서 衷心으로 믿고 이것  
으로 政府의 問安으로 하는 同時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이든 하나씩에서 이 貴國民의  
게 祝賀하기를 마하는 政府의 祈禱의 數  
語으로서 「마구하이의 한國民이요」 이렇게 어  
떠한 것이든 問安드립니다.

(拍手)  
(比擬實代表團退場)

(下午一時十分續開議)

○副議長(南華嶺) 그러면 다시 本會議을 始  
作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든 보시는 바와 같이  
時間이 벌써 定期에 十分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討論하는 것이 豫定한 바와 같이 부는이 남  
있는데 그러면 約三十分 投票하고 그러면 일  
이 있으면 한 時間을 約半時間이면 或은 半날  
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 사우는 萬一 時間이  
지났으니 來日하고자 하면 來日하고 그렇지 않  
으면 오늘 午後 半時까지에...

- (「來日합시다」 하는이 있음)
- (「그냥합시다」 하는이 있음)
- (「오늘합시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오늘 마하지요 그러면 그대도 繼續합  
니다 다음에는 無所屬議員을 代表해서 郭尙勤  
議員이 말합지요요 郭尙勤議員을 紹介합니다

—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郭尙勤議員 質問으로 大體討論으로 어떠한 것이든  
말을 하셨습니다. 거듭해서 저는 말을 할

必要가 없습니까? 라는 것은 다만 「마이크」를 통해서 國民에게 한 말씀 여쭙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本來 이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憲法은 國家의 母法이요 시다. 그나라의 基礎法인 까닭으로 이법의 變動이라든지 或은 變革이 없어야 할 頂大性을 지고 있다는 것은 常識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普通法과 달라서 이법은 三十日이라는 期限을 두고 國民에게 公告해서 이나라의 主權을 가진 民主國家의 主人 公인 一般民衆의 輿論을 듣는 것이요 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三十日이라는 長久한 時間을 두고 輿論을 듣는 것입니다. 結局에 있어서 이 輿論의 結晶이 우리는 國民의 代表인 國會議事堂에서 國會議員의 贊否決定으로서 이 重大한 法案을 決定하는 것이요 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國會議員이 이 法案의 決定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重大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요 도한 妨妨曲曲이 우리는 一般國民의 立法에 對한 贊否兩論을 우리는 들었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前番 休會를 利用해서 各自 地方으로 돌아가서 講演會를 하고 或은 街頭에서 或은 다른 方法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 國民의 意思를 打診했은 것입니다. 甚至於는 講演會를 열고 立法에 對한 意義를 說明하는 同時에 贊否에 對한 可否를 우리는 試驗해보았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三十日이라는 이 기간 시간 동안 國民의 意思를 充分히 우리는 聽得했은 것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법의 贊否를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 決코 우리의 國會議員의 權利

를 保障하기 위해서 國民의 意思가 이것을 背反할 決定을 處理가 萬無하고 또한 어떤 少數政界 사람의 意圖에 左右되어서 國民의 意思와 背馳된 決定을 處理가 萬無한 것이요 시다. 그것은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國會議員全體를 代表해서 國民에게 盟誓하는 것이요 시다. 可가 되거나 否가 되거나 우리가 表決한 結果를 보기 전에 斷言하기 어렵습니까? 라는 決코 以上 말한 우리의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서 國民의 意思에 背反한 決定이 되거나 少數政界의 意思에 左右되어서 이 問題를 決定치 않느냐는 國民의 意思가 그대로 오늘 이 마당에서 決定된다는 것을 우리는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國民에게 盟誓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徐二煥議員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법이 처음 나올 때부터 興味를 느끼지 않았어요. 民主政治의 榮榮인 것이요 國民全體가 行政府 또는 國會 모든 方面을 통해서 自己 個個의 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그런 制度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果然 制憲國會 때에 時期와 도는 그 促急性에 依支해서 우리는 未備한 法律을 마련해 가지고 그대로 施行해내려 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에 事情이요 또한 날이 가고 時間이 가는데 따라서 亦是 世界의 情勢와 國內의 情勢와 아울러서 多少 法律制定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 國民一般이 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案에 있어서 는 國民의 政治에 關係한 權利를 確實히 附與한 機構와 機會를 주지 못한 結果가 있고 骨子 없는 改憲案이 되어서 國民의 權利主張이 確實히 反映되는 改憲案이 兩院制라든지 大統領直接選舉制라는 것이

이 土臺 위에서 기前は는 나는 無意味하다고 보아서 以上을 말함드리고 이것으로써 그치겠습니다. ○副議長(曹奉特) 다음은 金正實議員 말씀하시요 ○金正實議員 自由黨을 代表하는. 또한 사람의 議員인 金正實입니다. 當今 比律實代表들이 왔다 가자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기도 하면 물음말이 있었어요. 大端히 世界的으로 疑問의는 憲法가운데 하나가 比律實憲法입니다. 特히 그憲法 가운데에 直接選舉制가 第一 重要한 問題인데 直接選舉制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直接選舉制에 있어서 大統領再選을 禁止했은입니다. 「메거시」 「부라질」 「南美」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大統領 直接選舉制을 實施하는 데에 있어서 再選을 禁止했은 데에요. 不拘하고 十九四〇年에 憲法을 改正하여서 再選을 許諾했다. 이理由가 邦達에 있는 再選을 허가 하는 理由가 邦達에 있는 再選을 許諾했다. 法律을 제 1번부터 가하는 것을 許諾하고 있었으나 大端히 遺憾스런 것입니다. 물론 지 못했은입니다.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本議員이 만 씬드러진 것음 光榮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大端히 遺憾스러이 생각합니다. 그理由는 極히 簡單한 理由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舉國적으로 또는 民族的으로 政府에서나 國會에서나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當面課業 가운데에 第一 重要한 當面課業이 될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의 權限을 實行하는 것입니다. 南北을 統一하는 것입니다.





大統領은 반드시 選舉합니다. 이렇게 選舉하는 나라는 問題에 있어서 世界의 歷史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가운데 첫째 直接選舉制입니다. 또 하나는 間接選舉制인데 間接選舉制에 두가지로 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카」合衆國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合衆國에 대해서 國務總理 選擧에 관한 말을 드릴 것은 어찌 애기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美國은 大統領 直接 選舉를 하는 나라이다. 그런 말을 했는대 그애기는 是正후시지 못하라고 是正후시지 못하면 한번 冊을 만들어 보시면 좋은것 같습니다. 間接選舉를 實施하는 데 있어서 國會以外의 特別한 機關을 두어가지고 間接選舉를 實施하는 나라의 代表的 國家가 美國이 아니라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또 한가지는 어머분이 잘아는바와 마찬가지로 國會에 있어서의 選舉입니다. 우리가 첫째 橫의으로 보아서 憲法 歷史가 있는以來 오늘날까지 나오는 동안에 大統領 選舉制度가 어떠한變遷을 겪었느냐 하면 大端히 어머분 지우하시지만 또 大端히 未安하지만 政府의 어머분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直接選舉制가 第一次大戰前에 相當히 있었는것은事實인데 第二次大戰後에는 全然 未定憲法에 따라 나지 않았다는 이事實을 어머분이 分明히 알아야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第一次大戰前과 第二次大戰後의 第二次大戰後의 이 部分을 나누어서 直接選舉制가 어떠한變遷을 보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簡單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一次大戰前에는 早라전 에키시로 보르비아 차리

피루 등 國家에서 採用하였는것입니다. 그리고 間接的인 選舉制를 採用한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알제리아라든지 美國이라든지 하는 나라가 第一次大戰前에 間接選舉制를 採用한것은 어머분이 잘아시는바입니다. 그다음에 立法機關에서 大統領을 選舉하는制度는 그以外的 모은나라가 立法機關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게 되었을니다. 그러면것이 第一次大戰後 말하자면 人類의 미미가 한번 파멸만 한 그러한 思想的變遷을 한 是 第一次大戰後의 直接選舉制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이야기를 簡單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一 첫째 가장 注目的 對象이 되는것은 우리나라 憲法와 가장 根本이 되었다고보이는 所謂 一九一九年八月十一日의 獨逸憲法입니다. 이獨逸憲法에서 어머분이 아시다싶이 大統領 直接選舉制를 採用했읍니다. 이때서 어머분이 잘아시는 「헌법」이 大統領으로 當選되었을니다. 그러나 社會主義 民主主義의 對立은 所謂 內亂問題 남은問題는 「히트러」가 나와서 憲法이요 아무것도 없애버리고만 結果가 남것은 어머분이 잘아실것입니다. 그다음 地地利는 一九二〇年二月二十九日成立된 聯邦總會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고 魏瑪(Weimar) 一九一九年七月十七日 三百名의 大統領 選舉人을 選舉하게 되고 大統領을 選舉하게 만들고 루트스토펙카이는 一九二〇年二月二十九日에 制定된 憲法에는 國民議會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게 하고 에스토니아는 一九二〇年六月十五日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고 단 지히自由市는 一九二〇年八月十三日 亦是 國民

會議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고 요-멘드는 一九二二年三月十七日 亦是 上院과 下院으로서 構成하는 國民會議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고 土耳其는 一九二五年五月二十四日 大國民會議에서 亦是 大統領을 選舉하고 여기에서 한가지 問題의 는것은 一九三五年二月八日 比律賓에서 直接選舉를 採用했읍니다. 그다음 어머분이 재미있게 생각할수있는 問題는 聯邦나라입니다. 一九三六年十二月五日 聯邦憲法이 成立되었는대 이 聯邦憲法은 어머나 어떠한問題가 大端히 重要한 問題인데 聯邦에는 大統領制度가 아닙니다. 하지만 大統領에 가까운 그러한 地位가 무엇이나 할것같은 所謂 最高會議幹部會議議長이라는 것입니다. 最高會議幹部會議議長은 어디서 選舉하느냐 할것같은 亦是 國會에서 選舉합니다. 그렇다면 第二次大戰後 成立된 모든 憲法 가운데에는 다 獨逸나라가 直接選舉制를 採用했다가 廢止된後에 比律賓만이 남아있다는것을 어머분에게 指摘해줍니다. 第二次大戰後에는 우리나라 憲法이 成立되기때문에 이것은 重要한 問題입니다. 萬一에 大統領 直接選舉制가 自然 必要하다고 할것같은 第二次大戰後에 成立된 憲法에서는 반드시 採用했을것에 對해서 大典 憲法에 따라야 할것이지만 大端히 不幸하게도 不幸이되면 廢棄가 있을나라는 不幸하게도 第二次大戰後에는 하나라도 直接選舉制를 採用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大端히 未安한 나라입니다. 바꾸시지만 알리프리아하였읍니다. 첫 佛蘭西가 一九四六年九月二十八日 成立된 憲法에는 國民議會가 大統領을 選舉합니다.





가 하부 緊迫한가함에 注意를 기울고 不得已  
 事變收拾을 國際的으로 早速的으로 促求하는  
 理由 正當 眞正한 民主政治의 基礎되는 地  
 方自治實施를 完全한 土憲위에 세우자는 것 다  
 가지 理由로 本議員은 本法案을 六·二五事變收  
 拾終了時까지 保留하는 勸諭를 提議합니다 勸  
 諭합니다

○李奎甲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黃奉岩) 李奎甲議員 保留勸諭 成立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實情 說明한 것이라 한  
 가지로 여겨볼 다 아시다싶이 保留하는 것은  
 一定한 再審査한다는 것 그러할 것이 있어서 保留  
 가 된다면 모르지만 三十日간의 公會期間을 早  
 어서 深思熟考해서 그때서 討論하는 것만지  
 大한 法案을 그저 保留한다는 것은 性質上 保  
 留勸諭가 成立될 것 같지 않습니다  
 (「成立되었어요」하는이 있음)

贊成하는이 있습니다

○李奎甲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黃奉岩) 贊成 再 있읍니다  
 (「있읍니다」하는이 있음)

勸諭成立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表決할 段階입니  
 다 그런데 政府로서 國務總理를 表決하기  
 前에 暫時 黃己의 意見을 採용한다 하합니다  
 (「必要없읍니다」하는이 있음)

必要없으면 그만주세요 그러면 이제 表決하겠  
 어요 그런데 여의분 다 아시다 現在 이國  
 會의 在籍員數는 百七十五人이예요 또 이法案  
 은 在籍員數의 三分之二의贊成을 얻어야 되는 것

입니다 그三分之二는 百十七人 그렇게 되어가  
 지고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찌분이 注意하세  
 요 그렇게 表決을 始作하자는 때 이 表決하는 方  
 法은 勿論 例에依해서 無記名投票로 합니다 異  
 議없지요  
 (「異議없읍니다」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監票委員을 내야 되겠어요 어떤 方  
 法으로 할까요  
 (「議長이指名하세요」하는이 있음)  
 議長이 指名하라고요 第一列 徐範錫議員 第二  
 列 白南載議員 第三列 李奎甲議員 第四列 金  
 正權議員 이 投票를 하는 時間中에는 出入을 禁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投票를 開始합니다  
 呼名합니다  
 (下午二時 投票開始)  
 投票한것이 이제예요 그러면 이제 投票圖을 받  
 습니다  
 (下午二時十八分 投票完了)  
 먼저 名牌圖을 調査합니다 이제 이 名牌數는  
 百六十三名입니다 다음은 投票圖을 보겠습니다  
 投票圖을 調査한結果 投票數가 亦是 百六十三  
 票입니다 그러면 開票를 하  
 (下午二時二十五分 開票完了)  
 投票한 結果를 報告합니다 可也十九票 否也百  
 四十三票 棄權이 하나 그래서 百六十三票로 정  
 니다 이것으로 이제 憲法: 大統領이 提出한  
 憲法改正案은 否決된것을 宣布해드립니다 그의  
 면 어찌분 잠깐 조용하세요 本來 우리를 計  
 劃은 오늘 이 改憲案이 決定되면 來日부터는  
 政府施政演說에對한 質問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議長이指名하세요」하는이 있음)

議長이 指名하라고요 第一列 徐範錫議員 第二

列 白南載議員 第三列 李奎甲議員 第四列 金

正權議員 이 投票를 하는 時間中에는 出入을 禁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投票를 開始합니다

呼名합니다 (下午二時 投票開始)

投票한것이 이제예요 그러면 이제 投票圖을 받

습니다

(下午二時十八分 投票完了)

먼저 名牌圖을 調査합니다 이제 이 名牌數는

百六十三名입니다 다음은 投票圖을 보겠습니다

投票圖을 調査한結果 投票數가 亦是 百六十三

票입니다 그러면 開票를 하

(下午二時二十五分 開票完了)

投票한 結果를 報告합니다 可也十九票 否也百

四十三票 棄權이 하나 그래서 百六十三票로 정

니다 이것으로 이제 憲法: 大統領이 提出한

憲法改正案은 否決된것을 宣布해드립니다 그의

면 어찌분 잠깐 조용하세요 本來 우리를 計

劃은 오늘 이 改憲案이 決定되면 來日부터는

방 各派의 意見으로서는 그 質問은 國政監查를  
 마칠뒤에 하는 것이 옳다는 意見에 一致했다고 합니  
 다 그러면 來日은 그것으로 아나하고 議事日  
 程關係로있고해서 來日 하루는 쉬고 土曜日날  
 日曜日은 쉬게되는 것이고 月曜日에 開會하는  
 것이예요 異議없어요?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月曜日날 午前開會時에 再開할것을 宣布  
 해드립니다  
 (下午二時三十分散會)

(下午二時三十分散會)